

해외출장결과보고

1. 출장건명 : OECD 농업환경정책위원회 제29차 JWP 회의 참석
2. 출장목적 : OECD 농업환경정책위원회 제29차 JWP회의 참석, 의제별 입장 발표
3. 출장일정

일 자	이동상황	방문기관	주요 사항
12월 6(일)	서울 → 파리	-	• 숙소 도착
12월 7일(월) ~ 12월 9일(수)	체 재	OECD본부	• 최근 회원국의 농업환경정책 동향발표 및 논의 • 제28차 JWP 회의 결과 보고서 채택 • 농업환경합동작업반 활동 보고 • 농업환경정책 목록화 현황 및 향후 추진 방향 • 기후변화 농업세션 논의의제 - 2010년 및 이후 기후변화 분석 로드맵 - 토지이용 변화 - 탄소 정량화 - 호주와 뉴질랜드, 유럽의 식품분야 탄소발자국 제도 - 기후변화와 농업 관련 전문가 워크숍 개최 계획 • 물과 농업 세션 - 농업에 수질의 지속가능한 관리 - 물관리 의사결정 제고를 위한 정보기반 개선 관련 워크숍 계획 • 농업환경지표 세션 - 농업환경지표 워크숍 개최계획 - 농업분야 환경성과 평가(2차 버전)를 위한 회원국 설문조사 • 2011-2012년 의제발굴 브레인스토밍 • 2010년 JWP의장단 선출 • 차기 회의의제 선정
12월 10일(목) ~ 12월 11일(금)	파리 → 서울	-	• 회의결과 보고 및 전문작성 • 귀국

OECD JWP 제29차 회의 결과보고

I. OECD 제29차 JWP 회의 개요

○ 회의명칭 : OECD 농업/환경정책위원회 제29차 JWP회의

○ 회의기간 및 장소

- 기간: 2009년 12월 7일 ~12월 9일

- 장소: OECD 본부 대회의실

○ 회의참석 우리나라 대표단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김창길 박사

- 농림수산식품부 국제협력총괄과 홍진희 주무관

- OECD 대표부 한동민 과장, 김종률 과장

※ 제29차 JWP회의에는 OECD 회원국 전체 30개 국가에서 최소한 1명 이상의 대표자가 참석하였고, 우리나라는 4명, 일본 4명, 미국 3명, OECD사무국 10명 등 총 70여명이 참석하였음.

II. 주요 회의결과

1. 회원국의 농업환경정책 및 관련분야 연구동향에 관한 토의

□ 의제개요

○ 최근 회원국의 농업환경정책 변동 상황 및 관련분야 주요 연구결과에 대해 스웨덴, 영국, 스위스, 한국 등 4개 국가의 발표가 있었음.

- 스웨덴은 지난 9.23-24일 개최되었던 농업환경 실무회의에 대해 발표함, 주로 물 관리에 대해 논의하였으며 가능한 많은 이해관계자들이 토론에 참여하였음, 세 가지 분야에 대해 중점적으로 다루었는데 첫째, 수질관리를 위한 전제조건 및 필요조치, 둘째, 이를 위한 정책적 도구(사전에 소그룹 토의를 마침), 셋째, 실용적인 적용 방법 등에 대해 논의하였으며 결과 보고서는 금주 주말에 웹사이트([www. se2009.eu](http://www.se2009.eu))에 올릴 계획임을 설명함

- 영국은 '09년 농업환경작업반이후의 주안점을 소개하며 영농환경(farmed

environment) 캠페인, 물 보호지역 선정 및 공표, 탄소저감 전이 (transition) 계획, 혐기성 분해(anaerobic digestion)에 대한 TF 보고서, 적응 프로젝트, 임업과 기후변화에 대한 영국의 평가(공헌과 다양성에 대한 적응), 새로운 연구방법 등을 소개하였음

- 스위스는 '10.3월 스위스의 레이신에서 농업환경지표 workshop 을 주최할 계획을 발표
- 한국은 국제적인 온실가스 감축에 적극 동참하기 위해 202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배출전망치(BAU) 대비 30% 감축하는 하는 방안을 결정했다는 내용을 발표함.

□ 회원국 반응

- 영국의 영농환경 캠페인(Campaign for the Farmed Environment) 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고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 질문함. 영국은 영농환경 캠페인을 적극적으로 권장하고 있고, 상호준수를 포함한 규제조치도 필요에 따라 실시하며, 향후 진행상황에 대한 보고서를 발표할 계획임. 영농환경 프로그램에 대해 비용효과분석을 추진하며, 잠재적인 오염가능성 등에 대해 모니터링할 계획임을 설명함.

2. 농업환경정책위원회 합동작업반 활용보고(Activity Report)

<28차 농업환경합동작업반 상호준수(cross compliance) 관련문서 공개>

○ 주요내용

- 2009년 7월 제28차 농업환경작업반에서 공개보류가 결정되었으나 향후 보완작업을 마친 문서들은 현재 프랑스어 버전 작업이 진행 중이며 번역이 완료되는 대로 공개요청 할 계획임.
- 농업환경이슈 관련 정책조치 평가보고서, 농업정책과 환경효과간의 연계 분석(SAPIM 활용), 비용효과적인 농업환경정책 구상 및 집행, 농업용 수자원의 지속관리 보고서 등의 영문본은 현재 OECD 대표단 코너에 등재하고 있음.

○ 회원국 반응과 사무국 답변

- 미국, 포르투갈, 호주 등은 28차 JWP에서 발표된 상호준수관련 문서에 대

해 서면으로 코멘트를 제출하였으나 일부 사항이 반영되지 않은 점을 지적함.

- 사무국은 이미 문서제출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공했으며 일부 문서는 세부사항에 대한 표현은 협조가 필요하며, 특히 SAPIM은 각국의 코멘트의 조율 등을 통해 진행하였음을 설명, 일부 스페인의 코멘트에 대해서는 표현이 명확하지 않아 다시 협의할 계획임을 밝힘.

<EPOC의 농업환경관련 향후 계획발표>

○ 주요내용

- 농업환경 발전을 위한 적절한 논의 그룹결성과 관련 위원회를 통한 mandate를 작성, 합동작업반을 통한 포트폴리오 작성 등 진전이 필요함.
- 기후변화에 대한 모델링 개발, 기후변화 연계 영향, 기후변화 정책에 대한 영향, 기후변화 적응(농지사용 및 농지사용변경, 자연자원 사용), 기후변화와 물 관리 중요성이 제시됨.
- 포스트 코펜하겐 제15차 기후변화총회(COP15) 결정사항 대응
- 대체연료 사용에 대한 G-20에 보고서 준비 대응(IAEA, OECD 및 G-20 공동 리포트)
- 환경경제, 보조금, 정치경제, 개혁 등의 중요성 강조: PSE, 어업보조금 등에 대해 모델링 및 영향분석, 보조금과 환경에 대한 연계와 기후변화 작업과 관련하여 화석 대체연료에 대해 환경성을 강조, 화석연료에 대한 보조금 조치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공하고 가능한 개혁프로그램을 개발
- food chain에서 생물다양성과, 생태계, 환경서비스에서의 보존, 에코시스템에 대한 농업경영관리의 중요성과

○ 회원국 반응

- EU는 농업에서의 화석연료 보조금에 대해서는 많은 다른 기구·기관의 투입과 산출분석, 비용효과분석이 필요하며, 화석연료에 대해 EU는 보조금이 없으나 OECD 차원에서 GHG배출과 관련하여 조정이 필요함.
- 미국은 기후변화 관련 모델링 작업에 대해 협력할 계획임을 밝힘.
- 영국은 합동작업반의 역할은 주요 이슈에 대한 해결책, 방안에 대한 공헌

이 중요하며 회원국의 적극적인 참여를 이끌어 내야 미래에 도움이 될 것임을 언급함.

- 캐나다는 환경분과와 관련된 제안에 대해 환영하고, 합동작업반이 환경과 제에 대해 더욱 기여하기를 바란다는 의견을 제시함.
- EU는 화석연료에 대한 보조금 감축문제에 대해서는 국제기구와의 협력이 필요하며, 농지사용변경에 대한 논의는 향후 더욱 중요해질 전망이며, 합동작업반회의, 전문가 포럼, TF 등을 통해 시너지를 상승시킬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야 함.

⇒ EPOC은 글로벌 협력방안은 매우 유용할 것이며, 지역사회를 기반으로 한 농업환경 검토가 필요하고, 내년의 농업장관 각료회의는 중요한 의미를 가지며, 동 회의에서 2011-2012사업계획안에 대해 각 국 각료들의 기후변화 대응책, 농업에서의 정책결정 등에 대한 장기적인 안목에서의 협력과 OECD에서의 브레인스토밍을 통한 상당한 결과를 희망함

<이스라엘 농업환경에 대한 사무국의 발표>

○ 주요 내용

- 이스라엘의 OECD가입을 위한 사무국의 평가보고 및 이에 대한 이스라엘 농정의 성과, 진행중인 개혁, 향후 목표에 대해 자평 등에 대해 이스라엘의 프리젠테이션이 지난 11월 농업위원회에서 있었으며, 농업환경 관련 내용은 이스라엘의 농업환경 프로그램, 협력사항, 워크숍, 연구, 수질관리에 대한 수평적 프로젝트 등에 대한 검토가 있음
- 이스라엘 농업의 주요 과제는 늘어나는 인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생산량 증가와 농업의 친환경 기능을 향상시킬 것이라는 기대에 부응하는 것임. 특히 수자원의 관리가 중요함. 정부의 수자원 정책 개혁으로 농업 부문의 물에 대한 지원금을 줄여 물 사용료가 높아졌지만 농업 생산에 부정적인 영향은 주지 않음. 그러나 농업이 전체 물의 50% 이상을 사용하고 기후변화를 감안 물 사용의 효율성을 개선시킬 노력들이 더 필요함
- 농업의 친환경 기능을 향상시키는 데에도 성과가 있었음. 살충제 사용 규제로 유기농법이 확산되었고 토질 유지와 배수 문제 개선, 무경운농법 등은 농지의 퇴화와 사막화를 예방하고 생물의 다양성 보존에도 좋은 영향을 줌.

- 농업과 환경에 대한 다양하고 복잡한 문제들을 해결하려면 더 종합적인 정책의 개발이 필요함.
- 환경 감시와 정책 평가에 대한 개선이 필요함. 정책에 대한 환경 및 경제적 평가를 확인할 자료가 정책 입안자들에게 제공되어야 함. 농업환경과 관련된 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더욱 노력이 필요함.

○ 회원국 반응

- 우리나라는 농경지의 양분수지(nutrient balance)에 대한 언급은 없는지를 질의하고 이에 대해 사무국은 언급은 있었으나 아직 양분수진 분석이 이루어지지 않아 보고서에 담지 못했다고 답했으며
- 이탈리아는 이스라엘의 관개시설에 대한 세부사항에 대한 정보를 요구함.

⇒ 사무국은 이스라엘의 관개시설은 이스라엘의 중요한 문제이며 계속 증가하고는 있으며, 수질오염에 대해 이스라엘은 재활용 하고 있으나 향후 증가시켜야 하며, 물 쿼터, 수리권거래제(permit trading) 등을 소개함.

3. 농업환경정책조치의 목록(inventory)

□ 의제개요

- 회원국별 농업환경정책 프로그램에 대한 목록화 작업이 2004년 12월에 OECD 사무국에 의해 착수되어 2007년에 16개 회원국을 대상으로 기본적인 작업이 이루어졌음. 그러나 인벤토리 작성 실제로 참여키 위해 사무국으로 관련정보를 제출한 국가는 한국을 포함하여 9개 국가임.
- 최근의 여건변화를 고려하여 관련정보에 대한 업데이트 방식과 참여하지 않은 회원국에 대한 인벤토리 작성관련 정보제출을 독려하는 문서임.
- 목록화의 DB국축에 있어 개념적인 이슈로 농업환경정책과 OECD PSE/CSE 데이터베이스의 연계, 조건불리지역(less-favored area) 직불제를 농업환경정책으로 전환, 기후변화 대응정책의 추가 등임.
- 인벤토리는 회원국의 분야별 정책프로그램의 핵심 내용을 담아 워드 및 엑셀 파일 형식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함. 인벤토리 문서에 포함된 특정 정책에 대한 설명은 연구 데이터베이스를 통해서 접속할 수 있도록 함.

□ 회원국 반응

- EU대표는 농업환경정책 목록의 업데이트 작업은 정보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필요성은 인정하나, 기후변화에 대한 논의가 이제 막 시작되어 정책프로그램으로 다룰 내용이 많지 않으므로 기후변화 대응조치에 대한 목록화는 시기상조임을 지적함.
- 영국은 농업환경정책의 목록은 매우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므로 최근 정보를 담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업데이트되어야 하고, 특히 기후변화 관련 정책은 모든 회원국이 중요하게 다루는 과제이므로 목록화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함.
- 미국은 농업환경정책은 프로그램에 따라서는 여러 가지 정책목표를 가지므로 세분화하여 PSE와 연계하는데 어려움이 따라며, 실제로 이러한 작업이 이루어진다고 해서 추가적인 정보의 가치(value added)의 과연 어느정도가 되는지 생각해볼 필요가 있음을 지적함.
- 한국은 농업환경정책조치의 목록화와 PSE의 연계는 정책별로 다양한 정책목표를 가지고 있어 심층적인 검토를 필요로 하고, 목록화 작업의 갱신과 관련 이미 기본작업이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정보 갱신이 필요한 분야인 예산부분과 정보 출처 등과 같이 변경이 필요한 부분만 업데이트하는 방식으로 추진하면 2년마다 갱신작업이 이루어져도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음을 제시함. 또한 기후변화 완화와 적응은 향후 핵심적으로 다루어야 할 과제이고 또한 농업환경과 직접적으로 연계되어 있어 목록화 작업에 포함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함.

□ 논의결과

- 사무국은 목록화 작업의 갱신 정보를 최소화하는 방식으로 추진하고, 2008년까지 접수된 정보를 기초로 목록화 작업을 추진함.
- 목록화 작업의 정보갱신 작업은 2010년 1월말까지 회원국에 관련내용을 송부하고, 2월말까지 회원국의 검토를 거치며, 제시된 의견을 반영하여 2010년 6월 30차 JWP회의시 미래역할, 구조, 갱신절차 등을 담은 문서를 발표기로 함.
- 농업환경정책 목록화를 위해 기초자료를 제시하지 않은 국가의 경우 가능하면 2009년 말까지, 늦어도 2010년 2월말까지 관련자료를 제출해줄 것으로 요청함.

<별첨 1> 인벤토리 관련 작성양식(안)

정 책	정책의 제목
기 관	정책 시행기관
관련 법령	정책과 관련된 법령 (법령을 이용할 수 있는 웹사이트 링크가 된 곳 - 웹사이트가 영어로 구성되어 있는지 자국어로만 구성되어 있는지 가 명시되어 있는 곳)
전체 목표	전체 목표가 기술된 정책 목표
전달 메커니즘	정책이행 원리를 설명 (조건이 충족되어야 하고, 직접지불제 시행 방법과 관련된 세부사항, 규제 요구사항에 대한 강화 메커니즘 등)
목 표	특정 목표(벤치마킹 또는 시작수준)
적용시기	정책이 적용되는 연도
적용범위/ 자격규정	정책의 적용범위 - 국가, 지역, 지방 수준에 따라 적용 - 의무적, 자발적으로 참여 (관련 적격성 규정은 모두 또는 특정 그룹에 해당됨)
비 용	비용을 지불하고 정보 이용가능 - 직접지불제의 경우 재정/예산상의 비용, - 규정의 요구사항이 있을 경우, 농업인에게 비용 청구 (링크는 모든 AE 지불금에 대한 검토 자료를 엑셀 표로 제공함)
프로그램 모니터링 및 평가 방법	모니터링 및 평가의 절차와 방법에 대한 설명
참여/결과	이용가능할 경우, 프로그램 참여에 대한 양적 정보(농장 수, 포함 지역 등), 프로그램/정책 시행으로 인해 농장이행에서 나타난 변화에 대한 정보 혹은 환경적 결과에 대한 정보
출처/추가 정보	이용가능한 정보의 출처, 추가 정보가 이용가능하고 또한 포함되어 있는 링크된 웹사이트

4. 기후변화와 농업 - 2010년 이후 기후변화 연구 로드맵

□ 의제개요

- 2009년 6월 OECD 각료위원회에서 제시된 “녹색성장 전략 선언”(Green Growth Strategy Declaration)을 보다 체계적으로 다루고, 또한 '09.12월 코펜하겐에서 개최되는 기후변화 당사국 총회(COP15)의 취지를 반영하여 체계적인 기후변화 대응 연구를 추진하는 내용을 담은 문서임.
- 기후변화와 관련한 논의는 2006년 6월 제23차 JWP 회의에서 “기후변화에 따른 농업부문 영향과 적응 방안”에 관한 컨설턴트(영국 Adger 교수) 보고

서가 발표되면서, 이후 지속적인 논의가 이루어졌고, 이러한 논의를 배경으로 연구진행 로드맵을 제시하게 된 것임.

- 주요 연구과제로는 기후변화와 농업을 체계적으로 다루기 위한 배경으로 완화와 적응수단, 완화방안으로 경종과 축산분야의 온실가스 완화와 농경지의 탄소 저장방안, 기후변화와 물 문제, 정책적 도전과제, 저탄소 녹색경제에 있어 농업분야의 심층적인 분석 등의 내용을 제시함.
- 저탄소 농업에 대한 기여와 온난화에 적응하기 위한 방안의 기본적인 틀로 ① 농업생산에서 발생하는 배출량 저감, ②모든 자원의 온실가스 흡수기능 향상, ③배출량이 많은 제품을 대체할 수 있는 제품 개발, ④농업 생산요소와 제품 가격에 대한 온실가스 완화정책 등을 제시함.
- 기후변화 이슈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2010년 6월에서 이탈리아에서 FAO와 공동으로 “2050년 농업과 저탄소 경제: OECD와 비OECD 국가를 위한 기술적 이슈와 도전”이란 주제로 워크숍 개최기로 결정

□ 회원국 반응

- 캐다다는 기후변화 이슈를 다루는데 있어서 완화와 적응에 초점을 맞추는 것은 적절하나, 기후변화에 따른 식량안보와 바이오에너지 분야 등도 적절하게 다루어야 함을 강조함.
- 호주는 기후변화에 대한 시나리오 설정과 관련하여 이야기 방식(storyline approach)은 적절하며, 너무 비관적인 시각보다는 기온상승의 경우 2℃ 정도로 상정한 접근방식은 바람직하다는 점을 강조함. 또한 농업분야의 경우 온난화의 불가피성을 반영하여 기후변화 적응 분야에 보다 관심을 가지고 다루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함.
- 한국은 기후변화 완화와 적응에 대한 논의를 위해서는 제28차 JWP 회의 시 컨설턴트 보고서에서 제시된 바와 같이 인과관계 분석과 영향분석도 적절하게 다루어야 한다는 점을 지적함. 또한 기후변화의 완화와 적응 대안의 선택과 평가를 위해서는 대안별 한계감축비용(marginal abatement cost) 분석을 다루는 내용이 포함되어야 함을 제안함.
- 미국은 기후변화 이슈를 종합적으로 다루기 위해 분야별로 핵심내용을 담은 로드맵 구상안은 잘 갖추어져 있으며, 한국이 제안한 한계감축비용 분석에 대한 접근은 정책분석은 물론이고 농민들의 대안 선택을 논의하는데 중요한 접근방식임을 강조함. 또한 기온상승의 경우 2℃상승과 관련하여 농업분야의 어느 정도 완화에 기여하게 되는지, 어려운 분야이긴 하나 타

분야에서 탄소가격이 얼마나 변화하게 될 것인가를 고려해야 함을 강조함. 기후변화를 다루는데 여러 가지 모델이 적용될 것인바 각각에 대해 장점과 단점을 명확하게 제시해야 함을 제시함.

- EU 대표는 기후변화에 대한 논의에 있어서 부정적인 측면은 물론이고 긍정적인 측면도 균형있게 다루어져야 하며, 농경지 변화와 분야별 온실가스 배출 등에 관해 신뢰성 있는 자료 확보 방안도 다루어져야 한다는 점을 지적함.
- 뉴질랜드는 기후변화 분석에 있어서 경제분석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탄소배출의 경우 축산분야가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 이에 대한 적절한 대안 마련에 심층적인 논의가 필요함을 강조함. 또한 농업분야의 경우 완화정책도 중요하나 적응정책에도 상당한 관심을 가져야 하고, 특히 작물보험분야를 적절하게 다루어야 한다는 점을 지적함.
- 오스트리아와 스위스는 2010년 6월 저탄소 농업경제를 논의하는 워크숍의 구성은 잘 갖추어져 있고, 타 분야의 워크숍과 차별화될 수 있도록 경제 및 정책분석에 상당한 비중을 가지고 다루어야 함을 강조함.
- 포르투갈은 기후변화를 다루는데 있어서 경제적 정책적 측면도 중요하나 불확실성 측면과 완화와 적응정책과 관련하여 대안별 우선순위, 완화와 적응의 시너지 효과 등도 비중있게 다루어야 함을 강조함.
- 독일은 심포지엄 주제로 저탄소 경제로 설정은 바람직하며 기후변화에 대응하여 식량문제를 다루기 위해 식량생산 제고 방안과 농업부문에서 구체적으로 저탄소 분야를 식별하는 내용도 다루어야 함을 제시함.

□ 논의결과

- 사무국은 기후변화 대응과 관련하여 부문별로 상당히 중요한 의견이 많이 제시되어 로드맵 연구계획 문서(scoping paper) 작성에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면서, 추가적인 의견은 2010년 1월말까지 사무국으로 제출해 줄 것을 요청함.
- 연구과제 내용과 관련 적응분야를 보다 비중있게 다루고, 완화와 적응의 시너지 효과, 보다 설득력 있는 시나리오 설정을 위한 줄거리 방식 활용, 기후변화와 관련하여 식량안보와 생물다양성 이슈 등 회원국 대표가 제시된 의견을 적절하게 반영하여 2010년 6월 JWP 회의에 논의문서로 제출키로 함.

5. 기후변화와 농업 - 완화와 적응 관련 농민 행태와 관리기법

□ 의제개요

- 기후변화의 완화와 적응 조치에 농민들의 의사결정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심층적으로 다루기 위해 농민들의 의사결정에 있어서 시간선호, 위험선호, 사회적 선호 등과 연계된 행동연구에 대한 검토, 정책의 역할 등을 다루기 위해 처음으로 제시된 문서임.
- 기후변화 관련 인센티브와 규제의 정책조치가 농업인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체계적인 분석이 중요함. 또한 정책이행의 촉진 요인과 장애요인이 어느 정도인지를 평가하는데 있어서 농장관리의 이행과 장벽 등에 다름.
- 정책입안자가 정책대상인 농업인에 대한 고려사항으로 기후변화 완화와 적응 정책으로 금융적 인센티브와 규제조치, 교육 및 정보, 전통적인 지역적 기법과 정책의 일치성 등을 다루게 됨. 또한 농업인 의사결정에 있어서 불확실성과 비용 측면, 탄소배출권거래제에 있어서 농업인들의 온실가스 저감에 대해 크레딧을 부여에 대한 반응 등을 다룸.
- 농업인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수입극대화 이외에 정책목표와 정책내용에 대한 인식도, 농업에 대한 전통적·윤리적 태도, 스트레스 및 스트레스를 다루는 능력, 농업에 대한 만족도 및 낙관성, 위험태도, 정보의 질과 양, 개인의 문제해결 능력 및 개성 등을 제시함.
- 기후변화에 대응한 농장관리에서 나타나는 행동의 변칙성으로 농장 크레딧 프로그램을 예상보다 더 많거나 적게 이용하는 경우(이윤극대화 및 예산된 효용함수에 대한 시스템 상의 에러), 시장 기회에 예상보다 더 많거나 적게 참가하는 경우(이윤극대화 및 예산된 효용함수에 대한 시스템 상의 에러), 장기 후생에 부합되지 않아 보이는 단기 결정(선택기간에 할인율의 변화) 등을 제시함.
- 기후변화 대응 농업인의 행태분석을 다루는 연구과제 추진방향으로 통상적인 의사결정에서 벗어나는 비표준 선호, 비표준 소신(믿음, 의견), 비표준 의사결정을 다루기 위해 행동경제학적 접근방법을 활용함. 또한 정책수용을 위한 금융 인센티브 및 비금융적 동기부여와 관련 완화활동의 비용에 대한 연구와 기후변화의 외부성 문제와 손실회피에 대한 연구 등으로 제시함.

- 연구결과물의 발간과 관련하여 문헌검토와 회원국의 관련정책 정보 등을 초안은 2010년 6월 JWP 회의에서 발표하고, 완결본은 2010년 12월 6-8일에 발표될 예정임.

□ 회원국 반응

- 영국은 기후변화 대응과 관련 농업인의 행태는 주관적인 의사결정을 다루게 되므로 다양한 OECD 회원국을 대상으로 다루되, 비 회원국 가운데 중국을 연구대상으로 추가하는 것은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함.
- EU 대표는 기후변화 정책수용의 측면에서 농가행태에 관한 연구는 바람직하나 실제로 연구결과가 다양한 특성을 가진 국가의 특성상 어느 정도 기여하게 될 것인지는 의문이라는 시각을 제시하면서, 연구대상을 타 국가로 확대하기 보다는 회원국을 대상으로 보다 실질적 연구성과를 제시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함.
- 한국은 기후변화 대응 농가단위 접근에서 농업센서스 자료의 활용은 정보 이용범위에서 한계가 있으므로 실제로 설문조사 등을 기초로 한 연구가 이루어져 하며, 연구대상은 비회원국으로 확대하기 보다는 OECD 국가로 한정된 연구가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함. 또한 한국에서는 기후변화 적응 관련 농가행태를 분석한 연구가 수행되어 관련 정보를 사무국에 제공기로 함.
- 캐나다는 농가단위 연구에서는 실제로 적용 가능한 최적관리기법(best management practice) 발굴 및 완화와 적응 관련 기술과 시장 등 크게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검토도 동시에 이루어져야 함을 강조함. 캐나다의 경우 농가단위 연구실적이 있으므로 관련자료를 제공기로 함.
- 독일은 농가행태 연구에서 비회원국으로 확대하기 보다는 회원국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특히 기후변화 적응과 완화에 대응한 농업인의 능력을 평가하는 연구의 필요성을 제시함.

□ 논의결과

- 사무국은 기후변화 대응 농민행태 연구에 대한 추가적인 의견은 2010년 1월말까지 제출하고, 제시된 의견을 반영하여 보다 구체화된 연구계획 문

서를 2010년 6월 JWP에서 발표기로 함.

6. 농지이용 및 농지이용 변화 - 기후변화 분석을 위한 함축성

□ 의제개요

- 농지이용 및 농지이용 변화는 2009-2010 작업 프로그램의 기후변화 관련 전략과제의 일환으로 제안되었음. 이 과제는 2010년도 “저탄소경제의 농업” 분석을 지원하여 농경지의 탄소고정을 통한 온실가스 흡수능력 활용 프로젝트 수행에 기여하기 위함임.
- ※ 농경지의 탄소고정을 이용한 온실가스 흡수능력은 포스트교토에서 중요한 과제로 다루어질 것으로 보이고, 특히 농경지 면적이 큰 국가(농산물 수출국)인 미국, 호주, 뉴질랜드 등 주요국가의 국가전략으로 추진되고 있어 OECD에서도 비중을 두고 세부적인 내용을 담은 보고서가 이번 회의에서 중요하게 다루어짐.
- 현행 토지이용 방식은 온실가스 배출에 상당한 기여를 하고 있음. 농지이용 및 농지이용 변화의 개선은 기후변화 대응방안 모색에 있어 중요한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음. 지구상의 이산화탄소 농도를 450ppm 수준으로 안정화시키기 위해서는 토지이용의 탄소고정(carbon sequestration)이 중요한 역할을 수행함.
- 토지이용 · 토지이용변화 · 산림(LULUCF)과 농업은 전 세계 온실가스 배출량의 30%이상을 차지함. 토양탄소고정(Soil Carbon Sequestration)과 관련하여 IPCC는 배출량 저감을 위한 농업부문의 기술적 잠재력을 약 5.5-6Gt으로 추정하고 있는데, 90%이상이 토양탄소고정을 통해서 달성될 수 있음. 토양탄소고정은 농민들에 의해서 이행될 수 있는 가장 비용효과적인 방안으로, 공공정책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것임.
- 농경지의 탄소흡수 기능을 체계적으로 다루기 위해 산림분야와의 비교, 토지이용 역할, 체계적으로 다루기 위한 시기별 문서 발표내용, 특히 교토의정서에서 제시하는 토지이용, 토지이용 변화 및 산림(Land Use, Land-Use Change, and Forestry, LULUCF)와 다른 토지이용정보교환(Land Use Change Information Exchange, LUCIE)에 대해 제안함.
- 탄소고정에 대한 정보격차(information gap) 해소를 위해서는 농경지 토

양의 탄소고정의 측정과 모니터링에 대한 정보격차가 중요함. 따라서 농업토양 탄소고정과 관련된 정책일 수립하기 전에 보다 많은 지역들의 정보를 수집하는 추가적인 연구가 필수적으로 이루어져야 함.

- 토지와 토지이용변화의 역할분석과 관련하여 농업부문 토지이용의 탄소고정과 관련된 측정과 모니터링에 대한 최근의 과학적 이해를 종합해야 함. 측정과 모니터링에 대한 정보격차를 확인해야 하고, OECD 회원국들의 토지이용에 대한 정책정보를 공유하는 네트워크 구축의 필요성을 강조함.
- 농지이용 및 농지이용 변화에 관한 체계적이 접근을 위해 2010년 6월 JWP회의시 LULUCF의 하위범주로 “농경지”, “목초지”, “습지대” 등으로 설정하고, 토양고정을 위한 작물관리 방식(무경운 혹은 경운의 감소, 종합양분관리, 윤작, 토양 개량, 목초지 개선) 등을 다룸. 또한 회원국의 농지이용 관련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LUCIE(Land Use Change Information Exchange) 프로그램을 활용함.

□ 회원국 반응

- 캐나다와 미국은 농지이용 관련 정보격차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탄소고정에 관한 과학적인 모니터링과 분석이 선행되어야 함을 강조함. LULUCF를 대체하는 방안으로 LUCIE를 제시하고 있으나, 좀더 명확하게 부각될 수 있도록 심층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함.
- 프랑스와 폴란드는 농경지의 이용변화의 정보를 온실가스 관리정보로 활용하는 방식에 공감하나 과연 LULUCF와 같이 국제적으로 공인될 수 있는 체로 니 관리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함.
- 영국은 토지의 탄소흡수능력을 인정하는 LULUCF를 대체하는 새로운 토지이용 능력을 평가할 수 있는 관리시스템으로 토지이용정보교환(LUCIE)은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되나, 구축 목적을 분명하게 제시해야 함을 강조함.

□ 논의결과

- 사무국은 추가적인 의견은 2010년 1월말까지 제출해줄 것을 요청하였고, 제안된 의견을 반영하여 구체적인 연구내용을 담은 보고서를 2010년 6월 차기 JWP회의에서 발표기로 함.

7. 기후변화 관련 워크숍 개최 계획

□ 주요내용

- 농업부문의 기후변화에 대한 체계적인 대응책 모색을 위해 OECD, FAO, INEA(이탈리아 농업경제연구원)이 공동으로 개최.
- 워크숍에는 FAO, IPCC, IFPRI 등도 참여할 예정임, 주로 기후변화에 대한 협력방안, 적응 및 완화 전략, 정책반영 방안, 식량안보를 위한 경합성에 대해 주로 논의할 예정임.
- 워크숍 추진위원회 구성 및 자발적 기여금 등에 대해 논의함.
- 워크숍은 이탈리아 로마에서 개최될 예정이며, FAO의 기후변화 분서자료 등 과학적 측면에서 작물 생산 등에 대한 자료가 보완될 예정임.
- 주요 발표내용과 관련 지역농업상황, 물 관리에 대해 폭넓게 논의하고 관개시설 등 인프라시설 및 이탈리아 농업부와 지역정부의 협조로 기후변화에 따른 농촌발전 방안 등을 논의할 예정임. 또한 현재 남유럽은 가뭄 및 폭염 등으로 농업은 어려운 상황에 처해있고, 기후변화에 대한 시나리오 및 시뮬레이션을 도입하고 있어 이 분야를 내용을 발표함.

□ 회원국 반응

- 미국은 기후변화에 대한 적응과 완화전략 중 적응전략에 초점을점을 맞추어야 함을 강조하고 전망에서 시나리오는 기준시점(baseline)은 중요하지는 않으며 지역경제에 대해 low carbon은 결실을 맺을 것이고 식량안보와 지속가능성에 대해서도 논의하기를 바램, 적응과 완화에 대한 시너지도 중요하며 상호작용(interact) 방안에 대해 논의 필요성을 언급.
- 캐나다는 적응과 완화전략도 중요하며 적합한 정책을 도입하여 실행하여 실질적인 효과를 내야 함을 주장.
- 영국은 전문가 workshop을 조직을 필요가 있으며, 영국에서 이미 기후변화 완화 전략에 대해 독일, 프랑스 등과 이미 논의한 바가 있으므로, 포커스를 적응전략에 맞출 것을 주장하고 steering group에의 참여의사를 표시함.
- 유기비료의 탄소고정 작용, 바이오매스 증가 및 산림 에너지에 대한 시나

리오, 대조 및 비교 완화방안 시나리오를 작물생산에 적용하여 생산을 극대화 시키고 GHG 배출을 줄이는 기술을 개발하여야 함을 언급함.

- 포르투갈은 농업에서의 완화와 적응전략, 탄소저감(low carbon)경제효과에 대해 검토하며, 특히 완화 옵션에 중점을 두고, 캐나다의 사회과학적 방법론에 대해 지지하며, 농업의 탄소고정에 대한 기여와 조치 등도 다룰 것을 주문
- 스페인은 물 이슈 및 생물다양성을 적응과 완화전략에서 논의되어야 함을 언급함
- 호주는 식량안보와 기후변화는 불가분의 관계이며 향후 긍정적 부정적 상황을 예측할 수 있으므로 동 workshop에 대해 환영함

8. 탄소계산과 농지이용 변화

□ 의제개요

- 농경지의 탄소저장 기능에 대한 체계적인 접근을 위해 미국 아이오와대의 Miranowski교수의 컨설턴트 보고서 초안인 “탄소계산과 농지이용 변화 : 온실가스 감축에 있어 농업부문의 잠재적 기여”를 발표함.
- 탄소계산(carbon accounting)은 해당 부문의 에너지 이용과 농산물 생산의 투입-산출(input-output) 자료를 기초로 이루어지며 전과정평가(Life Cycle Assessment, LCA) 방법을 적용하여 이루어지고 있음.
- 현행 탄소계산 모형은 고정된 모수와 공학적인 방식을 적용하고 있어, 해당분야의 수요와 공급이 변하는 경우의 가격효과(price effect)가 반영되지 않는 한계를 가지고 있음. 실제로 미국에서 바이오에너지 생산을 위해 사료용 옥수수 가격이 급등하여 축산분야에 상당한 영향을 미쳤고 옥수수를 생산하는 농가는 수익이 증가하였으나, LCA에서는 이러한 가격변화가 반영할 수 없음.
- 탄소계산을 기초로 한 농경지의 탄소흡수량 산정은 특정지역을 대상으로 한 연구도 중요하나, 지구적 차원의 모형(global model) 개발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회원국간의 정보공유가 필요함을 강조함.
- 탄소계산의 추정결과는 탄소배출권거래시장의 권리(credit) 확보에도 중요한 정보로 활용될 수 있어 온실가스 완화에도 기여하고, 또한 기후변화 적응에도 활용할 수 있음.

□ 회원국 반응

- 영국은 탄소계산은 많은 정보를 필요로 하나 현실적으로 정책적 활용을 위해서는 좀더 신뢰할 수 있는 과학적인 연구가 진행되어야 함. 현재 영국에서는 탄소 계산에 관한 여러 모델이 개발되어 활용되고 있어 이들 정보가 과제수행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지원 의사를 피력함.
- 미국은 탄소계산에 관한 광범위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어 농업부문 탄소관리에 상당한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는 의견을 제시함. 다만 LCA를 이용한 복잡한 분석은 학술적 연구로는 가치가 있을지 모르나 실용성이 떨어질 수 있으므로 정책적 관심을 모형에 반영해야 함을 강조함.
- 한국은 탄소계산시 LCA 방법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방법론의 한계로 제시된 가격 효과 반영문제 등이 적절하게 해결될 수 있는 차선택이 마련되어야 함을 지적하였고, 농경지의 탄소저장 기능과 관련하여 주로 밭을 대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나, 논·의 경우 관리하기에 따라서는 밭보다 탄소저장 기능이 크므로 모형에 논·의 기능이 반영되어야 함을 강조함.
- 이탈리아는 농업분야의 LCA적용 과제가 최근 FAO에서 이루어져 중요한 정보로 활용이 가능하다는 점과 탄소배출권거래제로 활용하기 위해 보다 신뢰할 수 있는 방법론 구축이 필요하다는 점을 지적함. 탄소배출권거래제에서 농업부문이 적절한 역할을 하지 못하는 것은 현재 탄소가격이 매우 낮게 설정되었기 때문이며, 국가별로 온실가스 감축목표가 설정되면 시장에서 적절한 가격이 설정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는 의견을 제시함.
- 캐나다는 탄소산정에 LCA 적용은 돋보이나, 공학적인 방법론을 적용하는 경우 매우 불안정한 결과가 도출될 수 있으며, 장소와 기술 및 에너지 대상에 따라 결과가 탄소산정치가 크게 달라 질 수 있기 때문에 유념해야 함을 지적함. 탄소산정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자원이용, 직·간접 이용에 따른 지속가능성 이슈, 장기적인 정책 추진방안 등에 관한 과제가 적절하게 반영된다면 보다 활용성이 높은 연구결과 도출이 가능하다는 의견을 제시함.

□ 논의결과

- 발표자는 탄소계산은 토양 유기탄소, 작물수량, 적용기술 등에 따라 크게 변할 수 있으므로 LCA적용의 취약점으로 지적될 수 있음을 인정하면서, 이들 한계점을 보완할 수 있는 새로운 방식(pathways) 개발의 필요성을 강조함. 실제로 과제를 수행하면서 취약점을 보완하는 방식에 대해 심층적인 검토가 이루어질

것임을 밝힘.

- 농경지의 탄소계산에서 주로 밭에 한정하여 이루어지고 있으나 논을 대상으로 한 연구결과와 필요로 하는 파라미터의 값이 제공된다면 논과 밭, 목초지 등 농경지 모두를 대상으로 한 연구가 이루어질 수 있음을 밝히면서, 한국에서 논에 관한 연구결과가 있으면 관련정보를 제공해주길 요청함.
- 탄소배출권거래제에서 농업부문이 배제되는 상당한 이유는 현재 탄소가격이 1달러 미만으로 매우 낮은 가격에 거래되기 때문이며, 미국의 경우 아직 국가적으로 온실가스 감축 목표치(cap)가 발표되어 관리되고 있지 않는데서 비롯됨. 만약 온실가스 감축 목표치가 발표되면 탄소시장의 가격형성이 제대로 이루어지게 되고, 농경지의 탄소 흡수기능에 대한 인정이 제대로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된다는 의견을 피력함.
- 사무국은 탄소계산에 관한 컨설턴트 발표내용에 대한 서면의견을 2010년 1월 말까지 제출하면, 제시된 의견을 적절하게 반영하여 다듬어진 문서를 2010년 6월 JWP 회의시 발표기로 함.

9. 시장에서 탄소계산 - 탄소발자국제도 개관 및 적용사례

□ 의제개요

- 시장에서 탄소가 거래될 수 있도록 하는 탄소발자국제도의 추진 근거와 배경, 이론, 운용방식, 적용사례 등을 다룬 문서를 이번 회의에서 처음으로 발표함. 이 문서는 2009년 12월 3일과 4일에 개최된 무역환경합동작업반(JWPTE)에서 논의된바 있음.
- 제품 탄소발자국(Product Carbon Footprinting, PCF) 계산은 정책과 사회트렌드를 반영하여 기업에 의해 수행되는 다양한 행동에 대한 기반으로 하고 있으며, 제품을 환경적·경제적으로 유도함. 라벨링은 소비자에게 기후영향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기후 친화적인 방향으로 구매결정을 하도록 영향을 미침. 특히 PCF는 기업이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도록 유도함. 탄소발자국은 상당한 비용과 음의 수요효과를 유발할 수도 있으며 표준을 제대로 설정하지 않는다면 경쟁력과 무역에 있어 불공정성을 야기할 수 있음.

- PCF에서 전과정분석과 관련된 방법론적 문제점으로는 보편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단일 LCA 방법론이 개발되지 않아 LCA 대한 합의가 도출되지 않고 있고, LCA에 대한 정의가 다양해, 정의에 따른 전혀 다른 결과가 도출되며, LCA에 대한 포괄적인 자료가 부족하다는 점임.
- ISO 환경기준은 1997년 이후 ISO는 탄소발자국과 관련된 다양한 표준을 제시해 옴. ISO 14040 시리즈가 탄소발자국에 적용될 수 있음. LCA 이행에서 준수되어야 하는 절차로 2006년에 ISO 14040와 ISO 14044의 두 표준으로 분리됨. 정부와 국제기구의 탄소발자국 기준 제안
- 온실가스 산정과 관련하여 세계자원연구소(World Resources Institute, WRI)와 세계지속가능발전기업협의회(World Business Council on Sustainable Development, WBCSD)은 2008년 9월에 제품 및 공급 체인 온실가스 측정 및 보고 표준을 제시함. 새로운 표준은 제품 전과정 측정과 계산, 보고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포함할 것임. 300개 이상의 기업, 전문가, 이해관계자들에 대한 설문조사를 통하여 포괄적이고 국제적으로 수용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을 제시 함.
- 탄소라벨링제도의 회원국 적용 사례로 프랑스는 자국내에서 판매되는 제품 및 서비스의 특정 범주에 대한 환경마크의 표시를 2011년까지 의무화할 계획임. 환경마크에 대한 지원분야는 환경라벨링 관련 민간분야 지원과 데이터베이스 구축 지원 등임.
- 일본은 2009년 새로운 탄소발자국 시스템(CFS, Carbon Footprint System)를 도입함. “탄소발자국 시험프로그램”(CFPP, Carbon Footprint Pilot Programme)는 경제무역산업성(METI), 농림수산업성(MAFF), 환경성(MOE), 국토교통성(MLIT)의 협력으로 시작함. 탄소발자국제도는 제품 탄소발자국에 대한 일반규정과 라벨에 대한 탄소 정보의 커뮤니케이션 규정으로 운영되고 있음.
- 유럽위원회가 주도하는 EU탄소라벨링제도는 우선 지속가능한 생산과 소비 행동 계획에 따라 EU 이사회는 EU 집행위원회에 기존의 EU 환경라벨링에 제품 탄소발자국에 대한 연구를 의뢰함. EU 이사회는 기존 PCF 방법론과 이니셔티브를 다양한 접근방법으로 분석함. 공공 탄소발자국 데이터 참고 시스템의 개발에 대한 협력 및 지원과 정책·기술 회의를 지속적으

로 개최함.

- 미국 캘리포니아는 저탄소 연료 표준(Low Carbon Fuel Standard, LCFS)를 채택함. 기업은 2011부터 2020년까지 연료의 탄소집약도를 계속 낮추어야 하거나, 청정에너지를 판매하는 기업으로부터 크레딧을 구입해야 함. LCFS의 목표는 캘리포니아 주내에서 사용되는 수송연료의 탄소집약도를 평균 10% 줄이는 것으로 바이오연료 같은 대체에너지나, 천연가스, 수소연료, 전기를 사용함.

※ 탄소라벨링은 원료채취, 생산, 수송, 유통, 폐기 등의 모든 과정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 발생량을 환경영향평가도구 중 하나인 전과정평가(Life Cycle Assessment)를 통해 결과를 정량화하여 제품에 표기함. 온실가스 배출량을 소비자에게 공개하고 이를 통한 저탄소 소비문화 확산을 유도하여 시장주도의 온실가스 감축을 도모하는 제도로 우리나라에서는 2009년 2월부터 탄소성적표지제도로 운영되고 있음. 탄소성적표지제도에서 아직 농업부문의 1차 원료산물의 제외되고 있고, 풀무원 두부와 CJ 햇반 등 일부 가공품이 적용되고 있음.

□ 회원국 반응

- 유럽, 캐나다, 독일 등 대부분의 회원국은 탄소발자국제도는 비농업분야에서 시작되어 활발하게 추진되고 있으나, 농업분야에 적용되기 위해서는 전과정평가 인벤토리 구축 등 선결과제가 이루어져야 함.
- 미국은 실제로 탄소라벨링제도가 농업분야의 저탄소 농업생산시스템 구축에 어느정도 기여하는지에 대한 실증적인 연구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됨.

□ 논의결과

- 사무국은 탄소라벨링제도 관련 추가적인 서면 검토의견을 2010년 1월말까지 제출하면 무역환경합동작업반(JWPTE)에 넘겨 보고서에 제시된 의견을 반영토록 하여 2010년 6월 JWP회의시 최종본을 발표기로 함.

10. 수자원과 농업-지속가능한 농업수질관리

□ 주요 내용

- 최근 각국에서 농업용수의 오염을 저감시킨 성공적 정책 및 시장 중심적 접근 경험(사례)을 취합하여 지속적인 농업용수의 수질관리를 위한 성공적 정책을 제시
- 보고서는 8개의 섹션으로 구분되어 있으며 섹션 I ~ IV는 농업과 수질관계에 대해 원동력과 환경상태를 주로 분석하는 내용으로 기존 OECD 보고서 인용 및 문헌연구를 통하여 작성, 섹션 V ~ X는 농업분야의 수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구체적 사례 및 정책을 기술함이 목적으로, 이를 위해 OECD 회원 국가들의 성공적인 사례, 대응정책 및 시장적 접근 방법을 취합, 검토 후 인용

<회원국 논의동향>

- 스페인은 수질은 농업분야에서 중요한 이슈로 관개시설의 현대화를 통해 물 이용은 물론이고 수질개선에 큰 관심을 가지고 다루고 있음. 특히 수질관련 농업환경지표는 정책개발과 평가에 크게 도움이 됨. 수질 분야의 실제적인 이슈로 특히 염화문제를 다루고 있어 이 문제도 향후 적절하게 다루어져야 할 것임.
- 멕시코는 수질관련 문서는 큰 관심을 가지고 다루고 있는 이슈로 컨설턴트 보고서는 현안 문제 진단에 크게 도움이 되는 문서임. 또한 시장베이스에서 농부가 물 관리역량을 발전시킬 수 있는 방안과 win-win전략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현재 멕시코는 콜로라도 강의 심각한 오염으로 농업에도 악영향을 받고 있으며 모범 영농기법 보급 및 기술발전에 대한 연구의 중요성을 언급
- 노르웨이는 수질오염 문제에 있어 농약의 수질오염이 중요한 이슈임. 수질문제는 매우 어려운 과제이나 설문조사를 통해 적절하게 분석된 것으로 판단됨.
- 뉴질랜드는 수질보고서의 계획추진 내용에 대체로 만족하나, 사례국가의 접근에 설문조사 답변의 관련성과 정확성에 한계가 있으므로 이러한 점을 보완하는 장치마련이 필요함을 지적함. 뉴질랜드의 경우 수질관련 연구성과가 있으므로 기여할 것으로 판단됨. 과잉양분으로 지하수와 지표수의 오염문제는 중요한 이슈로 간과해서는 안된다는 점을 강조함.

- 체코는 수질분야의 이슈에 있어서 시나리오별 접근이 이루어져야 함을 강조함. 국가별 여건이 다르기 때문에 비교 연구에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음을 지적함.
- 베기에는 과잉양분의 수질문제에 큰 관심을 가지며 침전물(sediment)에 의한 수질오염을 비중있게 다루어야 함을 강조함.
- 프랑스는 여러 회원국의 수질을 종합하여 제시한 내용은 크게 도움이 된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컨설팅 도움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지역적 특성이 잘 반영될 수 있도록 컨설팅의 절차와 구조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 호주는 지난해에 호주정부의 action plan에 따라 수질관리에 중점을 두었음을 언급하고 특히 catchment(급수지) 관리를 기후변화와 연계하여 접근할 것을 강조, '11.12월 개최예정인 물관련 글로벌포럼에 대해 환영하고 세부사항에 대해 질의함, 수질에 대한 새로운 오염원(pollutant)에 대한 사례연구 및 공유의 중요성을 강조함.
- 미국은 멕시코의 제안에 동의하며 현재 멕시코와 미국은 콜로라도 국경 지역에서 수질오염 문제로 갈등상황이 야기되고 있음, 이러한 범국경적인(trans boundary) 수질오염 문제에 대해 합동작업반에 브레인스토밍 해주기를 바라며, 또한 유사 사례에 대한 연구 및 데이터, 조사방문 등이 필요함을 언급
- 영국은 수질관리에 대한 시뮬레이션과 정부의 재정지원 등을 강조함.
- 스위스는 물에 대한 지하수 및 표면수에 대해 잘 정리된 훌륭한 보고서이며 국경지역에서 나라들이 생물다양성 관련하여 공헌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수질조치와 환경생태계 프로그램연계, 급수지 관리 및 사례연구 등의 중요성에 대해 언급함
- 스웨덴은 수질연구 관련은 적용 기술 및 실용적 방안이 정책에 연계되어야 함을 언급하고 수질개선을 위한 모니터링, 유기농업의 중요성의 강조함.
- 캐나다는 미국의 의견에 동의하고 수질과 연계된 물 베이스에서 국제적으로 지속가능한 발전방안에 대해 언급
- 오스트리아는 농업은 수질오염에 대해 pollutant를 제공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적절한 연구와 적절한 정보가 제공되어야 함을 지적함
- 포르투갈은 수질에 대해 재원을 관리하고 기후변화와 연관하여 물 부족문

제는 심각해져 가고 있으며 멕시코의 trans boundary문제와 관련해서 국가간에 물자원에 대한 갈등의 소지를 내포하고 있는 것이라고 언급하고 유사 사례연구 및 모니터링이 필요함

- 우리나라의 수자원 구조에서의 수질의 중요성, 특히 상수원지 수질(tap water)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축산업과 수질관련으로 bias가 있는 것은 사실이며 이에 대한 균형있는 접근이 필요함.

<사무국 답변>

- 사무국은 수질오염과 관련 양분과 농약 및 병원균(pathogen) 등에 의한 오염은 심층적으로 다루어야 하며, 컨설턴트 보고서에 대한 서면검토의견을 제시해주길 요청함.
- 기후변화와 수질 문제를 다루는데 있어 조치를 취하는 경우의 비용과 조치를 취하지 않는 경우 비용(inaction cost)에 대한 비교검토가 필요함.
- 사례연구와 설문조사 방식의 경우 각각이 장단점을 가짐. 사례연구의 경우 국가별 일관성과 특성 및 구조변화 등에 대한 심층적인 검토가 가능함. 분야별 전문가를 통한 설문조사 답변도 상당한 도움이 된다는 점을 강조함.
- 수질관련 회원국의 서면의견은 9월 중순까지 사무국으로 제출하면 12월 제출문서 보완작업이 이루어질 것임을 밝힘.
- 뉴질랜드의 수질관련 케이스 스터디를 제공할 계획이며 내년 1월에 회원국들에게 회람될 계획임.
- 사무국은 타분과와 관련된 수평적 프로그램과 관련하여 사례연구와 워터베이스에 대한 2011-2012 거버넌스 프로그램을 운용할 계획임.

11. 수자원과 농업 - 수자원관리 의사결정을 위한 워크숍

☐ 주요 내용

< 의제 내용 >

- 범위, 최근 동향, 비용, 농업에서의 수질 예측
- 비점농업오염원과 오염자 부담 원칙(PPP) : 오염세
- 정책, 정책혼합 및 시장 기반의 농업에서의 수질오염 해결 방안

- 수질, 농업 지원 정책과 환경정책의 연계
- 농업에서의 환경정책의 목표와 수질간 상쇄 정책과 상호 이익
- 농업에서 수질을 다루기 위한 향후 정책 방향

< 대표단 논의 사항 >

- 범위 확정 : 영양제, 살충제로 한정하여 연구할 것인가?
- 구조와 내용 : 적절한 분석 기법 및 논리적 구조
- 질문 및 답변을 이용한 조사 방법에 대한 의견
- 컨설턴트 추천

□ 회원국 반응

- 스페인에서 '10.4월 개최되는 물 관련 workshop의 참여를 독려하고, 정보·지식 등의 공유의 중요성을 언급함.
 - 미국은 스페인의 제안에 대해 환영하며, 물쿼터 및 물의 잠재 사용권에 제정의 중요성, 물관련 호리젠타 프로그램과의 연계성의 부족을 지적, 수질오염 및 서식지 영향에 대해 중점적으로 다룰 것을 제안함.
- ⇒ 사무국은 수평적 프로그램에 대해서도 다룰 것임을 언급하고 향후 관련 자료 발간, 월드워터 포럼 개최, 물관련 정보분석에 다른 국제기구 참여의 중요성 등에 대해 언급, 농업은 물이 많이 사용되는 분야로 관련 정보 및 데이터가 복잡하여 물가격에 대해 각 국을 분석하는 것은 쉽지 않으며 미국의 지적대로 수질오염관련 수자원공급에 대해서도 다룰 예정임을 답변함

□ 향후 계획

- '10.4월 : 스페인 아라곤에서 워크숍을 개최할 예정이며 수자원 관련해서는 개도국의 수자원 관리에 대한 정보가 매우 중요하며, 수자원과 농업의 관계, 농업분야 물가격과 관련하여 논의할 예정이며 이에 대한 페이지는 내년 1-2월까지 제출되어야 함.
- '10. 6. 28-30 : 주요 이슈를 포함한 초안 작성

- '10. 12. 6-8 : 초안 완성
- '11 중순 : 최종 보고서 완성, 공개
 - ※ 수질관리 관련 정책분야 매커니즘 개선, 사례연구를 통한 정보수집, horizontal 물 프로그램관련 '10.3월 전문가 회의, water supply와 water source에 대한 프로젝트 추진, 다른 국제기구와의 연계의 필요성, 기후변화 적응에 대한 수자원 분야 재정지원 확대, 2011-12년에 추진될 워터프로그램은 기후변화 적응 및 저탄소에 포커스를 두고 2012년에 OECD는 글로벌 포럼을 물에 중점으로 2011.12월에 개최할 계획임.

12. 농업환경지표 관련 워크숍 개최 계획

□ 주요내용

- 2008년 12월 제27차 JWP회의에서 개발된 농업환경지표를 정책결정자와 관계자들이 효과적으로 활용토록 하는 방안모색과 농업의 환경성과 개관 보고서를 업데이트한 2판 보고서 발간(2010년 보고서 작성완료, 2011년 보고서 발간)을 추진하기 위해 2010년 상반기 워크숍 개최 계획을 논의 하기 위함임.
- 2009년 7월에 개최된 제28차 JWP 회의에서 농업환경지표를 통한 교훈과 미래 방향을 논의하게 될 OECD 전문가 워크숍 개최는 2010년 3월 23일~3월 26일까지 스위스 레이신에서 개최기로 결정하고 워크숍 개최 관련 보다 상세한 내용을 스위스 대표가 발표함.
- 워크숍 개최 목적은 개발된 농업환경지표의 활용과 향후 갱신작업 등의 이슈를 다루기 위함이며, 워크숍 주제는 “OECD 농업환경지표(AEI) : 교훈과 미래방향”로 설정함.
- 워크숍 논의 어젠다
 - 세션 1: OECD 농업환경지표 개관 - 진행과 향후 과제
 - 세션 2: 정책수단으로 AEI를 이용한 최근의 경험과 미래 계획 검토
 - 세션 3: AEI 이용한 통합분석 시스템과 모형 - 최근의 이용과 향후 전망
 - 세션 4: AEI 향후 추진 방향 - 논의 결론 및 권고사항

□ 회원국 반응

- EU, 미국, 캐나다 등 대부분의 대표가 농업환경지표는 회원국의 농업환경 상태에 대한 비교와 향후 농업환경정책의 진단과 평가에 있어서 중요한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으며, 특히 농업환경지표를 정책평가와 연계하여 활용도를 높일 수 있는 방안에 대해 논의의 발표내용을 제안함.
- 한국은 농업환경지표의 교훈과 향후 추진방향과 관련하여 AEI 개관, 지표활용의 최근 경험과 미래 계획, AEI를 이용한 통합분석 시스템과 모형, AEI 향후 추진방향 등 네 세션으로 나누고 1일 현장견학 일정을 매우 짜임새 있게 잘 수립된 것으로 판단됨. 한국에서 농업환경지표의 정책적 활용방안 관련 연구과제를 수행한 바 있어 주제발표로 기여함을 제안함.

□ 논의결과

- 향후 워크숍 관련 주요 일정으로 2010년 2월 1일까지 워크숍 발표논문의 제목과 초록을 OECD 사무국에 제출해야 하고, 2010년 3월 15일까지 워크숍 발표논문 최종원고를 OECD 사무국에 제출

13. 농업환경지표 업데이트 관련 회원국 설문조사

□ 주요내용

- 사무국은 조사표의 목적은 2004년 농업환경 업무성과 조사표 자료가 웹사이트에 올라있으므로 조사표를 완성하고 비OECD 회원국에도 발송하여 자료를 받을 계획임을 설명

□ 회원국 반응

- 캐나다, 미국, 뉴질랜드는 조사표가 복잡하므로 이전 회의에서 단순화 작업에 대해 논의되었으나 반영이 되지 않은 것 같음, 실제 통계 작업이 경과되면 현재 운용하고 있는 프로세스와의 차이도 있을 수 있음을 언급
- 독일, 스웨덴은 농업수준 통계자료는 정확하지 않으며, 과거의 데이터 자체에도 문제가 있을 수 있음을 언급
- 체코는 조사표가 각국의 실정에 따라 다르게 해석되어 동일한 기준으로

작성이 되지 않는다면 비교 연구하는데 의미가 없을 수 있음을 언급, 멕시코의 경우 GHG 정의 및 산출에 차이가 있을 것으로 보임

□ 사무국 의견

- 사무국은 2004년 이후 자료를 모으는 작업이므로 통계작성의 어려움 및 자료의 모호함에 대해서는 이해하나 회원국의 노력 및 역할을 당부하고 유로스타트와 FAO통계를 활용할 수 있음을 언급하고, 데이터에 대한 자료를 발간하는 것은 중요한 작업이며 향후 GHG 현황에 대한 각국의 평균치를 제공할 계획임, 농약 및 환경관리에 대해 자세하게 다룰 것이며, GHG, 유기농업 정의 등에 대해서는 '10.1월중 자료를 제공하여 통계작성 과정에서 협의하여 결과 자료를 '10.6월에 제출할 계획임.
- 유럽통계청은 농지사용 목록과 정보에서 매우 자세하게 다룰 예정이며 실무회의를 통해 계속 논의할 계획임, 농지변경에 대해서는 soil sealing 등이 주요 이슈이며, 독일의 경우 지역적 데이터가 제한적이기는 하나 제출 바람, 향후 이에 대해 지역적 수준에서의 분석 자료로 활용할 계획임을 밝힘.
- 체코는 지역적 분석의 의미에 대해 질의
 - EUROSTAT는 언급하기를 유럽에서 데이터가 오는 것은 비정부 기구에서 제출하고 있으며 유럽은 다양한 지역 서식지가 고려되어야 함, 핀란드는 산림지역이어서 데이터에 문제가 있음을 언급함.

□ 향후계획

- EUROSTAT는 EU와 함께 '10.1월에 작업을 하고 설문지를 보내고 기관이나 농업부에 가능한 데이터를 모아서 회원국 또는 비회원국에서 제공된 데이터를 분석할 계획임.

14. OECD 사업 및 예산 프로그램에 대한 브레인스토밍

□ 주요내용

- 2011-2012년의 사업계획에 대한 브레인스토밍을 할 계획임, 동 자료는

‘10.2월까지 제출받아 5월에 농업위원회에 보고되고, 그 와중에 2월의 농업장관 각료회의에서 각 국의 협력을 요청할 계획임

- 2010년 현재 프로그램은 전문가들의 협력으로 value added한 작업이 되었고 농업분야와 환경 분야에 많은 제안 및 질문이 있을 것으로 보이며 오늘의 브레인스토밍은 사업의 우선순위에 대한 제안을 해 주기바람
- 향후 기후변화는 중요한 과제이며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적응 및 증진 모델링이 필요하고, 코펜하겐 제15차 기후변화총회(COP15)에서의 결과가 big push가 될 것dla.
- 이산화탄소에 대한 tax와 탄소시장, 생물다양성과 수자원, 건강과 환경이슈에서의 농업의 역할, GHG 완화와 APOC, EPOC 역할의 중요성을 강조
- 사무국은 우선순위는 농업정책을 활동에 대한 조치 및 평가 등의 중요성을 언급, 비 OECD 회원국에 대한 자료 및 검토도 매우 유용하며, 기후변화에 따른 자원자원 및 식량이 달라지고 이에 대한 시장구조에 대한 농업의 역할을 강조, 소비자, 영양, 건강의 잠재성 등이 중요함에 따라 농업의 역할은 계속하여 증대되고 있음
- 무역측면에서 NTB(비무역조치)가 농업에 관련되어 있고 환경무역작업반 활동을 통하여 탄소 라벨링, 화석연료 보조금 등에 대해 계속 논의할 예정임.
- 무역환경작업반에서는 향후 자유무역, 화석연료 보조금, 기후변화관련 불법트레이드, 탄소라벨링에 대한 경제적 인센티브 등을 주요 과제로 다룰 예정임

□ 회원국 반응

- EU는 미래자원의 제한에 대해 심포지엄을 개최를 언급하고, 기후변화 대응 전략의 일환으로 전통농업의 가능성에 대해 언급하고 신기술 개발과 보급 등의 희박한 자원에 대한 대응책을 언급
- 영국은 기후변화에 대해서는 완화 적응의 장단기 전략이 중요하며, 기후변화관련 식량안보 및 생물다양성에 대해서도 고려되어야 하며, 이에 대한 재원마련의 중요성에 대해 언급
- 물 관리의 향상 및 농부의 정책결정 관리, 농업인의 역량강화를 위한 기술지원, 교육훈련 등 미래에 대응할 수 있는 대응 시스템 마련

- 기후변화에 적응관련 R&D가 매우 중요하고 비회원국에 대해 검토 및 연구도 포함되어야 함을 강조함.
- 지속가능한 food chain system 구축, 임업분야에 대한 GHG 완화의 잠재성의 강조함
- 캐나다는 기후변화관련 이슈가 중심이 되어야 하며 수평적 연계를 통한 합동 프로젝트, 다른 OECD 파트와의 합동작업반 진행, 카본 트레이딩, 뉴질랜드에서의 사막화에 대한 농업 연구, LDC 그룹(최빈개도국)의 기후변화에 대한 연구 및 OECD에서의 과학적 연구 및 정책관련 연구의 중요성을 강조
- GHG를 감축할 수 있도록 개도국을 지원하고, 생태적 서비스의 다기능 적용, 다른 기능과 재원을 활용하는 효율적 가버넌스, 범국경적(trans border) 조치에 대한 가버넌스, 에코시스템 관련 워터 거버넌스 및 학문적 연구 등의 중요성을 강조
- 한국은 미래에는 환경성과 경제성을 동시에 고려하는 생태효율성이 더욱 중요하고 경제적 효율성에 대한 분석도 필요함을 언급, OECD 녹색기술과 미래의 저탄소 정책 등이 중요함. 녹색기술로는 지열(지열히트펌프)과 LED, 나노와 생명공학기술 등을 통합한 융합기술 등이 매우 중요한 측면이 될 것이며, 탄소발자국제도의 국제적 표준화의 중요성을 강조함.
- 한국은 저탄소 녹색성장의 국가발전을 전략을 추진하고 있으며, 탄소성적 표시제도도 뉴질랜드, 일본, 프랑스와 마찬가지로 시행하고 있음. 탄소발자국은 각 국가별 산업별로 유행처럼 확대되고 있으므로 국제표준화기구(ISO)와 연계하여 국제적 기준을 설정할 필요가 있음. 또한 미래농업에서 온실가스 문제에 대처하고 농업성장을 동시에 추구하는 저탄소 녹색성장 전략은 매우 중요함.
- 경제, 사회, 환경 분야의 지속가능성과 생태계에서 OECD도 사회분야가 많이 논의가 안 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며 정책 프레임워크를 발전시키고
- OECD에서 2011-2012 핵심과제로 녹색성장을 추진하는 경우 2011년 한국에서 농업부문 저탄소 녹색성장 전문가 워크숍 개최할 계획임.
- 프랑스는 농업분야 일자리 창출의 중요성을 강조, 저탄소 녹색성장이 일자리 창출에 어떻게 줄 것인가가 중요하며 인구가 많은 인도 중국에 대한 연구도 필요하며, 또한 R&D관련 영국의 제안에 동의하며, 마지막으로 임업분야는 OECD에서 비교적 적게 다루는 분야이나 기후변화 이슈에서

임업은 upfront해야 함.

- 스페인은 한국의 녹색성장과 프랑스의 의견에 동의하며 환경 경제적 측면은 농업에서 매우 중요하며 좋은 영농기법을 도입하여 녹색기술을 발전시켜야 하며, 비료와 물사용을 줄일 수 있고 글로벌 테크놀로지 및 경제 분야에서 농업의 역할에 대해 매우 중요하며, 녹색성장에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야 함을 강조함.
- 미국은 농지사용과 기후변화, 물관리 등에 대해 중요성을 강조함. 물관련 수평적 프로젝트는 명확해야 하며, 농지사용 이슈는 최우선 순위이며 인구증가에 따른 식량안보, 수질관련 cross board 이슈, 기준시점(baseline)과 환경 outlook에 대한 예측의 중요성을 강조함. 기후변화 대응정책은 비교적 많은 것을 이루지 못했으므로 바이오 연료, 모델링 분석작업, 완화와 적응작업 바이오연료의 영향, 생산 및 성장에 주는 영향이 중요함.
- 영국의 R&D 제안에 대한 동의함, 이는 향후 큰 기여가 될 것이며 환경정책에의 add value 등을 강조함.
- 호주는 농업환경 정책의 중요성에 대해 언급, 화석연료, 식량수요 증가 등 기후변화, 물관리 및 식량안보의 중요성을 강조함.
- 핀란드는 임업의 중요성에 대해 언급, 핀란드는 농업과 임업이 확실하게 분리가 되어있지 않으며 현재도 FAO와 임업관련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음을 언급, 에코 시스템 서비스와 경제적 가치는 중요성, 농부의 역량 강화 프로그램 개발 등에 대해 언급함.
- 일본은 기후변화에 대응한 바람직한 농업생산시스템과 식량안보의 중요성을 언급
- 포르투갈은 물관리, 기후변화, 식량안보와 환경 퍼포먼스 완화, GHG 감소, 화석연료 보조금, R&D에 대해 우선순위 과제로 둘 것을 언급함. 아울러, 포르투갈도 임업과 농업이 서로 연계되어 있고 기후변화에서 더욱 중요해지고 있으며 물 부족문제, 온난화 등에 대해 언급함.
- 뉴질랜드는 탄소 프린팅 등 우선순위는 기후변화 이슈가 되어야 하고 토양과 수질관리, 지역적인 기후변화 관련 물관리 등을 강조함. 또한 임업과 농지사용, 생물다양성, 농부의 역량강화, 관련 사례연구의 중요성을 언급
- 네덜랜드는 녹색성장은 중요한 프레임워크이며 농정개혁과 food chain에 매우 중요하며 관련 기술개발, 미국의 언급처럼 agrifood chain은 지속가능한 시스템은 어젠다가 되어 기후변화 이슈와 물관리, 생물다양성과 함께 우선

순위를 두고 논의되어야 함. 푸드 바이오매스에서의 전이가 green growth로 오면서 지속가능함이 더욱 중요하고 이에 대한 프레임워크 마련 등이 필요함을 제안함.

- 독일은 소비자 중심의 정책과 농업분야 개혁에 대해 강조, 기후변화와 녹색성장 전략, 에너지 위기, 식량위기 등에 대한 대응책, 기후변화와 생물다양성, 농부의 역량강화에 의한 농업생산성 향상, 소비자의 수요증가 및 식량안보 등에 대해 강조함.
- 멕시코는 trans boundary 농업과 영국의 언급대로 농부의 역량강화에 동의하고 농지사용 관련은 바이오연료와 함께 검토되어야 하며, OECD에서 브라질, 아프리카 등의 기후변화에 대해 검토하기를 바란다는 의견을 제안함.
- 이탈리아는 프로그램 우선순위는 임업에 두어야 하며 임업은 농업에 연결되어 있고, 기후변화 관련은 적응정책이 고려되어야 하며, 정책영역에 대한 관리가 필요하고 애그로 푸드의 다양성과 물관리 등의 중요성을 강조함. 또한 이탈리아의 많은 wet land(습지)가 있는데 이에 대한 경제적 효과와 밸런스를 연구하고 평가와 정책에 대한 가버넌스의 중요성도 강조함.
- 스웨덴은 기후변화가 정책의 우선순위가 되어야 하며, 또한 정책은 환경변화에 대처할 수 있게 유연하여야 하며, 각 국가의 정책의 관련성 등에 대해 언급함.

⇒ 의장은 계속하여 기후변화의 적응과 완화는 중점적으로 다루어질 것이며, 임업분야도 중요하게 다루어져야 함, 농지사용과 농지사용변경에서 혼합된 농림업 시스템은 유럽에서 상당히 존재되어있고, 임업의 녹색성장 기여의 중요성을 언급함. 또한 food chain, GMO문제, 생물다양성, 에코시스템 서비스 등도 중요하게 다루어져야하며, food chain이슈 정책은 carbon tax에 어떻게 영향을 주고 시장에 대한 영향도 중요성도 강조함.

□ 사무국 답변

- 사무국은 환경국 관련 작업과 향후 시너지를 위한 잠재성이 있으며 임업분야에 대한 중요성이 확대될 것이며 농지사용 및 농지사용변경에 대한 모델링, 생물다양성, 물관리 등에 대해한 각국의 제안을 반영키로 함.
- 녹색성장은 2010의 중점과제이나 2011년에도 실시할 것이고 main stream이며 협력, cost benefit, 수질오염정책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 스웨덴의

지적처럼 물 관련 horizontal 프로젝트에 대해 더욱 발전시키고 trans boundary(범국경) 물에 대해 초점을 맞추기로 함. food chain은 농업분야만 아닌 전체적으로 중요한 이슈이며 농업생산성과 농지사용이 동시에 고려되어야 하고 이슈를 다루는 계수(coefficient)를 조정하여야 하며, 정책결정은 모든 이해관계자들이 참여해야 함을 강조함.

15. 2010/2011년 농업환경작업반 의장단 선출

□ 주요내용

- 현재 농업환경작업반의 의장단은 의장은 노르웨이 Mr. Frode Lyssandtrae, 부의장은 영국 Mr. Jeremy Eppel, 미국 Dr. Marca Weinberg, 뉴질랜드 Mr. Grant King임.
- 지난 상반기에 이탈리아와 일본 부의장이 자리이동으로 사의를 표하였고, 제28차 회의는 4명의 의장단으로 운영하였고, 금번 29차 회의에서 의장단을 선출기로 결정.
- 기존의 5명의 의장단에서 1명이 더 추가되어 '10년부터 6명의 의장단을 선출함. 이에 따라 한국 김창길 박사(한농촌경제연구원), 이탈리아의 Franca Mellilo가 만장일치로 부의장으로 선출됨.
- 2010/2011 JWP 의장단은 의장으로 노르웨이 Mr. Frode Lyssandtrae, 부의장에는 영국 Mr. Jeremy Eppel, 미국 Dr. Marca Weinberg, 이탈리아 Ms. Franca Mellilo, 뉴질랜드 Mr. Grant King, 한국 김창길 박사로 구성

16. 2010년 농업환경 합동작업반 일정

□ 주요내용

- 2010 중점 이슈 : 경제분석 및 정책 접근, 물, 시너지 trade offs(협상), 식량안보, 생물다양성, 완화와 적응의 시너지
- '10.3월 : 농업환경지표 workshop, 스위스 레이신
- '10.4월 : 스페인 아라곤에서 workshop을 개최할 예정
- '10.6.23-25 : 기후변화 관련 workshop, 이탈리아 로마(INEA, FAO 등 참여)

- '10.6.28-30 : 제 30차 합동작업반 회의
 - 스위스 농업환경 지표 workshop 및 스페인의 물관련 workshop결과보고
 - 정책 요약과 정책서한(Policy Letter) 초안
 - 탄소 회계(pathways, 지속가능성), 완화 선택 작물 가축(consultants),
- '10.12월 : 제31차 합동작업반 회의
 - 농지변화 관련 연구추진 계획보고서(scoping paper), 정책 옵션(초안), 농부 행위(파이널), 워터

□ 회원국 반응

- 미국은 기후변화 관련 workshop이 농업환경작업반 전에 있으므로 3주전에 미리 안전 및 농업환경지표를 회람하여 주길 희망함.
 - 사무국은 3주전에 미리 안전을 배포하도록 노력하겠다고 언급
- 영국은 유용한 설명에 감사하고 기후변화 workshop관련해서는 적응 및 적응·완화 시너지를 다시한번 강조

Ⅲ. 관찰·평가 및 건의사항

1. 향후 논의의제 대비 사항

- 농업환경정책조치 목록화 작업이 2010년 2월까지 갱신작업과 관련한 자료를 제출해야 하므로 우리나라 친환경농업정책과 기후변화 대응 분야의 정책적 조치를 OECD 사무국의 양식에 따라서 작성해야 함. 이와 관련하여 농식품부 친환경농업과와 녹색미래전략과 담당자들에서 이번 회의의 의제와 논의 내용이 전달될 수 있도록 해야 함.
- 2010년 3월 스위스에서 개최되는 “농업환경지표 개발의 교훈과 향후 추진방향”에 관한 OECD 워크숍은 향후 국내 친환경농업정책과 기후변화 대응 관련 정책개발과 평가에 유력한 수단인 농업환경지표 개발을 논의하는 세션으로 국내 전문가가 참석하여 우리나라 사례를 발표토록 지원해야 함. 또한 사무국에서 회원국의 재정적 지원을 요청하였으므로 예산이 가능한 범위 내에서(약 5,000~10,000달러) 워크숍 지원이 필요함.

- 농업환경지표의 갱신작업과 관련하여 2010년 1월에 OECD 사무국에서 보내온 설문서 초안에 대한 검토와 2월부터 6월까지 13개 지표를 산정하여 설문서에 답해야 하므로 이에 대비한 작업이 유관기관(농촌진흥청 국립농업과학기술원)에서 연초부터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행정적인 조치가 필요함.

2. 기타사항

- 2010년부터 우리나라가 JWP의 부의장국이 되었으므로 향후 의제선정과 논의과정에서 나름대로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기대됨. OECD 회의와 관련 업무에 있어서 부의장으로 활발하게 활동할 수 있도록 적절한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적극적인 관심을 가져야 할 것임.
- 2011-2012의 핵심과제로 ‘저탄소 녹색성장’이 채택될 수 있도록 의장단의 의제선정 회의와 본회의에서 적극적인 지원의사 피력이 필요하며, 2011년에 우리나라에서 농업부문 녹색성장 추진 전략 개발에 관한 OECD 워크숍이 개최될 수 있도록 농식품부와 국책연구기관(KREI)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이 필요함.